

# 건강을 지키는 현장

조합원의 편의도모가 최우선 과제

조합원 위한 건강검사에 최선을 다하는

## 서울 제19지구 의료보험조합



▲ 피보험자·피부양자에  
대한 간염검사,  
성인병 검사

▼ 서울 19지구  
의료보험조합의  
吳世旭 대표이사



'87년, 조합으로는 최초로 보건예방사업을 시작한 서울 제19지구 의료보험조합은 실시 6년째를 맞는 올해 피보험자 간염검사 및 접종 6만9천여명, 35세미만 피부양자 간염검사 6만4천여명, 35세이상 피부양자 성인병 검사 4만6천여명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주기로 하고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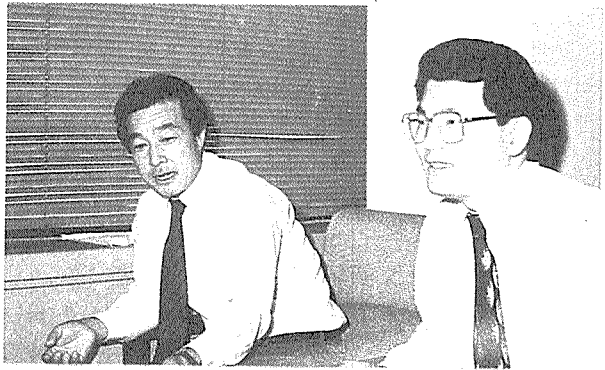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조합원의 편의와 권리행사 우선의 업무 추진으로 타 조합의 모범이 되고 있는 19지구 의보의 활동 내용을 이번 호에 소개해 본다.

# 건강을 지키는 현장

## • 조합으로는 최초로 건강검사 시작

서울 제19지구 의료보험조합이 생겨난 것은 10여년전인 '82년 8월이다. 한국은행 의보 등 당시 중구·종로구에 있었던 5개 조합을 모체로 시작된 19지구는, 이제 34개동에서 전체 사업장 2,250여개에 피보험자 77,800명, 피부양자 150,000명의 의보업무를 처리하는 지구조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착실한 의보업무 수행으로 어느 지구조합보다 빨리 보험제정의 안정을 가져왔던 19지구는, 그런 만큼 보건예방사업도 제일 먼저 시작함으로써 타 조합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19지구의 직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과 같은 조합원 우선 업무체제가 이루어졌다고 입을 모으는 鄭永俊 급여부장 (사진 좌) 과 朴明洙 급여 2과장

## • 올해로 실시 6년째, 사업 규모 확대

『보험제정이 안정되면서, 조합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87년, 조합으로는 제일 처음으로 보건예방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5년이상 무진료자들과 요식업 종사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간염검사와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19지구의보조합의 鄭永俊 급여부장의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시작된 보건예방사업은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에 이르렀다. 즉 '88년에는 전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간염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는데 총 3만7천여명이 이때 검사에 참여해, 초창기로서는 높은 실적을 거양했다. 또한 '89년에는 1만6천여명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누락자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에 대한 간염검사와 함께 만40세 이상의 피부양자를 대상

# 건강을 지키는 현장

으로 한 성인병 검진사업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올해로 실시 6년째를 맞는 19지구 의보조합의 보건예방사업은 피보험자 간염검사 및 접종에만도 첫째 860여만원에서, 7억3천여 만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세이상 35세미만 피부양자 간염검사(6만4천여명 대상)와 35세이상자에 대한 성인 병검사(4만6천여명 대상) 등 검사 규모만으로도 엄청나게 확대 되었다. 피보험자·피부양자의 호응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 ◦ 조합원에게 공평한 혜택주기 위해 능동적 업무 추진

한편, 19지구 의보조합의 보건예방사업 초창기부터 누구보다도 이일에 신념과 애착을 가지고 일해온 張明洙 급여2과장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보건예방사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검사 유도공문을 일일이 발송하고, 또 가가호호 연락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 모른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기왕에 마련한 제도니까 조합원 모두에게 공평한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또, 국가적 손실이나 조합의 손실을 막는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힘주어 말한다.

19지구 의보는 올해 피보험자 간염검사 및 예방접종 6만2천여명 피부양자 11만여명을 대상으로 간염검사 및 성인병 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 ◦ 조합원을 위해서라면 작은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편 19지구 의료보험조합은 보건예방사업 외에도, 조합원들이 의료보험혜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사소한 업무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로 유명하다. 즉,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의료보험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사망 장제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당하게 장제비를 타갈 수 있도록 조합측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금 보상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달에 같은 병원에서의 진료비가 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금의 50%를 조합에서 현금 보상토록 되어있는데, 이를 잘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조합이 직접 진료 내역을 검토해

# 건강을 지키는 현장

해당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한다고.

## • 전 직원의 사명감과 긍지가 오늘의 19지구를...

이처럼 19지구 의보조합이 조합원의 편의와 혜택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吳世旭대표이사를 필두로 전 직원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지난해 '91년 8월에 19지구 의보조합 대표이사로 취임한 吳世旭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의보조합 내에서 의료보험업무, 사회복지업무를 성실하게 담당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합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고, 능률적이고 과학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관리자로 인정받고 있다.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질병예방이 보험재정의 안정, 건강관리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한다.



## • 올해는 '87년 간염예방 접종자의 추가접종 유도도...

한편 19지구 의보조합은 '87년 간염예방 접종자들에게 접종 5년째가 되는 올해에 반드시 본인 부담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추적관리를 위해 이들은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 두고 있다고 한다.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의 질병예방이 보험재정의 안정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그들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는 보건예방사업과 함께 타 조합의 모범이 되고 있다.